



경제발전의 주력군 역할을 하여야

장안순서기 정협연변주 제12기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강조

2012년 12월 19일, 정협 연변주 제12기위원회 제1차회의가 오늘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서기인 장안순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 장안순은 주정협 11기위원회 1차회의 이래의 5년동안에 연변은 경제, 사회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개괄하고나서 “5년동안에 우리는 성당위, 성정부의 정확한 령도하에 과학적발전관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발전과 민생 이 두가지 관건을 주축으로 ‘개방선도, 대상견인, 도농통괄, 문화인도, 민생우선’ 발전전략을 강력히 실시하였으며 개방된 사상으로 과감히 개혁혁신하고 전력을 다해 난관을 돌파하였으며 금융위기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사적으로 보기도문 홍수해해를 이겨내면서 제반 사업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도약식발전에서 견실한 한 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하여 주적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문화가 번영하고 사회가 조화롭고 민족이 단합되고 번강이 안정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안거락업하는 좋은 국면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했다.

장안순은 향후 정협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견을 제기했다.

첫째, 18차당대회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여 정협사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효과적으로 증강하여야 한다.

18차당대회정신을 학습, 관철하는것은 현재와 향후 한시기동안의 주요임무이며 인민정협의 중대한 정치적임무이다. 18차당대회보고는 지난 5년동안의 사

업과 16차당대회이래의 분투로정 및 력사적성과를 회고하고 총화하였으며 과학적발전관의 력사적지위를 확립하고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분투목표를 확정하였으며 “5위1체”의 총적구도를 제기하여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포치하고 당건설 과학화수준의 전면 제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보고”는 초요사회 전면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다그칠 웅위로운 청사진을 그려 연변의 향후 발전에 방향을 밝혀주었다.

둘째, 정협기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연변의 도약식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아야 한다.

중심을 에워싸고 대국에 복무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하며 민주를 발양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민주정치건설을 촉진하는 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힘을 모으고 단결을 증진하여 조화사회를 구축하는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셋째, 정협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 개선하여 정협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여야 한다.

정협사업은 당의 전반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정협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 개선하는것은 정협사업을 추진하고 정협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주당위에서는 일관하게 정협사업을 중시하고 가장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